강진군, '가축시장 현대화' 축산업 발전 선도한다

20여년 이상 노후화 신축 요구
관내 1040농가 출하 편의 제공
전자경매시스템, 340두 경매돼
거래 시간 단축·가격 투명화도

강진군이 가축시장에 보조금 14억 4000만원을 투입해 전자경매시스템으로 한우 340두를 거래할 수 있도록 시설 현대화를 마쳤다.

군은 가축시장을 기반으로 타지역 출하농가 유입을 유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25일 강진군에 따르면 가축시장이 24년 만에 현대화된 모습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 지난 17일 사용 승인을 받은 강진가축시장은 20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 2001년 강진군 군동면 청자로 일원에 조성된 강진가축시장은 연평균 약 1만8000두의 거래량을 기록하며 전남 12개 가축시장 중 상위 규모를 자랑해 왔다. 하지만 시설 노후화와 협소한 휴게 공간에 따른 신축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강진군은 지난해 가축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을 통해 보조금 14억 4000만원을 확보하고 강진완도축협에 신축 사업비를 지원했다.

새로 건립된 가축시장은 부지 1만558㎡에 연면적 1773㎡ 규모다. 한우 경매장, 휴게실,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기반 조성비와 건축비 등 총 23억여원이 투입됐다.

현대화된 시설은 강진군 내 1040개 한우농가의 출하 편의를 제공하고 유통 체계 개선으로 강진한우 브랜드 육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첨단 전자경매시스템 도입으로 한우 340두를 동시에 경매할 수 있어 거래 시간이 대폭 단축됨은 물론 거래가격의 투명성도 확보될 전망이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체중뿐 아니라 체고와 체장까지 측정할 수 있는 우형기 3대를 설치해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이 시스템은 번식우와 송아지의 체형 정보를 정확히 제공함으로써 우량 한우가 더욱 높은 가격에 거래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전자경매시스템 도입은 한우농가의 신뢰를 높이고, 타지역 출하 농가의 유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진완도축협은 내년 1월 별도의 개장식을 개최하고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한우농가와 군민들은 신축 가축시장이 강진군 축산업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진=김윤복 기자

신규 소득작목 '레몬' 첫 수확
무안군, 제라몬 품종 재배 성공

무안군은 레몬 시범사업 농가에서 올해 레몬 첫 수확을 앞두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무안군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역의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새로운 소득작목 시설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에 참여한 운남면의 김천중 농업인은 960㎡ 규모의 시설하우스에서 레몬 국산품종 1호인 '제라몬' 품종 250주에서 레몬 생산에 성공, 예상 수확량은 1톤 이상으로 온라인과 직거래 등 다양한 유통 경로를 통해 소비될 예정이다.

무안군에서 생산되는 레몬은 수입산과 달리 겉껍질에 왁스코팅 및 화학작업을 거치지 않고 수확한 상태 그대로 유통돼 흐르는 물에 먼지나 이물질만 깨끗이 씻어서 샐러드드레싱, 레몬청, 레몬수 등 각종 요리에 활용할 수 있다.

무안=김행언 기자

무안군, 방사능방재 주민보호 훈련 무안군민들이 지난 19일 무안스포츠파크에서 한빛원전 방사능 누출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사능방재 주민보호 훈련'에 참가해 심폐소생술 방법을 학습하고 있다. **무안군 제공**

무안군, 건강진단서 발급비 지원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대상

무안군은 관내 식품위생업소 종사자들이 매년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서를 민간의료기관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건강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식품위생 영업자와 종사자들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년 의무적으로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폐결핵 등 건강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소 발급 비용은 3000원인데 비해 민간의료기관은 약 2만원이 들어 종사자들의 부담이 있었다.

이에 무안군은 의료기관 4개소(무안종합병원·남악온누리내과의원·남악복음내과의원·남악하나내과의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차액을 군에서 지원, 보건소와 동일한 3000원으로 건강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게 했다.

지원 대상은 무안군 식품위생업소 2700여개소의 영업주와 종사자이며 지난 2021년부터 매년 1000여명이 지원을 받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김산 무안군수는 "건강진단서 발급비 지원을 통해 식품 취급 종사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가까운 민간의료기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식품위생업소의 안전한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해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언 기자**

27일 100회 졸업식을 갖는 해남 계곡초등학교 학생들이 세계시민 역량 키우기의 일환으로 마련된 해외 견학에 나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계곡초 제공**

"다가올 미래의 100년 준비해요"

해남 계곡초 내일 100회 졸업식

해남 계곡초등학교가 27일 100회 졸업식과 함께 개교 100주년 행사를 갖는다.

계곡초는 지난 2021년 개교 100주년을 맞았으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행사를 갖지 못하고 이번 100회 졸업식과 함께 행사를 진행한다. 100주년 기념행사의 백미는 '학교 살리기'다. 갈수록 학생 수가 감소하는 현실에서 학교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계곡초와 총동문회의 설명이다.

실제 학교측은 이미 지난 해부터 농·산·어촌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계곡 '개천룡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등 학생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친환경생태 교육여건이 우수한 작은 학교만의 특성을 살린 각종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진행되고 있다. 동문들도 자발적인 후원을 통해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과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계곡초 총동문회 정광일 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오랜 전통을 가진 학교의 학생, 동문 등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와 함께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지역사회와 협력해 학교와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교육 콘텐츠 등을 공유하려는 노력도 호평을 받고 있다.

계곡초 박은미 교장은 "100년의 역사를 발판 삼아 다가올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학교와 졸업생, 지역 사회가 함께 노력해 우리 학교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계곡초는 1921년 성진공립보통학교로 개교해 1947년 성진국민학교, 1996년 계곡초등학교로 교명을 바꿨다. 해남 계곡면에 유일한 초등학교로 남아 있는 계곡초는 올해 100회 졸업생 5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모두 5488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신년 맞이 50% 할인 이벤트
완도해양치유센터

완도해양치유센터가 개관 1주년 기념 및 새해를 맞아 오는 1월1일 선착순 150명을 대상으로 '50% 특별 할인 이벤트'를 추진한다.

25일 완도군에 따르면 당초 1월1일은 완도해양치유센터 휴관일이었으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많은 관광객이 일출을 보기 위해 신지 명사십리를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에서 1층 기본 프로그램 이용료를 특별 할인하는 이벤트를 기획했다.

선착순 150명에게는 완도해양치유센터의 인기 테라피 제품인 유자 테라피 마스크팩을 개인당 1매씩 제공할 예정이다.

완도해양치유센터는 해수, 해조류, 머드 등 해양자원을 활용한 16개의 테라피 시설을 갖춘 국내 유일 해양치유 시설로, 개관 이후 5만4000여명이 이상의 관광객이 다녀가며 지역의 '힐링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했다.

아울러 센터는 개관 1주년을 맞아 풍성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에 '1'이 들어가는 사람은 내년 2월 말까지 평일 모든 프로그램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 2월 말까지 남녀 커플이 함께 센터를 이용하면 1명 가격으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으며 중·고등학생은 평일에 기본 프로그램을 1만원에 이용 가능하다.

완도해양치유센터 이용 후 네이버 영수증 리뷰 또는 해양치유센터 홈페이지에 후기를 작성한 고객에게는 해양치유 테라피 제품을 증정하고 개인 블로그에 체험 후기를 작성한 고객에게는 해양치유 여행 선물 세트를 제공한다. **완도=정태영 기자**

전략작물직불금 12월 중 지급
해남군, 관내 2672농가 대상

해남군은 2024년 전략작물 직불제 90여억원을 관내 2672농가에게 12월 중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전남에서 가장 많은 금액이다.

올해 전략작물직불제 지급은 동계작물 5876ha, 하계작물 2005ha이며 추가로 이모작 연계 시 받는 인센티브가 387ha이다.

전략작물직불제는 식량자급률 증진 및 논 이용률 제고와 쌀 적정 생산 유도를 위해 지급된다.

올해는 전략작물직불금 하계작물에 옥수수가 신규로 추가됐고 기존 논콩·가루쌀 ha당 100만원에서 두류·가루쌀 ha당 200만원으로 품목과 금액이 확대됐다.

전략작물직불금은 겨울철에 식량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하면 ha당 50만원, 여름철에 옥수수는 100만원, 두류·가루쌀은 200만원, 조사료는 430만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동계 밀·조사료와 하계 두류·가루쌀을 이모작하면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해남군은 전략작물직불제의 실효성 있는 시행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이행점검을 두 차례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지난달까지 대량검증 및 이의신청 접수를 받아 최종대상자를 확정했다.

이와 함께 올해 잦은 집중호우로 하계작물에 피해를 입은 농가들을 구제하기 위해 전략작물 재배 이행기준을 완화,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했다.

해남=전연수 기자